

가짜뉴스 때문에 韓 SNS 사용시간 꾸준히 감소

한국인의 SNS 사용 시간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가짜뉴스를 비롯한 광고 증가에 따른 이용자 피로도 증가가 원인이라고 꼽는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은 전국 2만3000명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SNS 앱 사용시간을 표본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페이스북 앱 사용시간은 2017년 1월 66억분에서 7월 61억분, 2018년 1월 52억분, 7월 40억분으로 감소했다. 밴드 사용시간은 2017년 1월 20억분에서 7월 19억분, 2018년 1월 18억분, 7월에는 18억분이다. 카카오톡 역시 2017년 1월 11억분에서 7월 8억분, 2018년 1월과 7월에는 각각 7억분으로 사용시간이 줄었다.

6월 발표된 DMC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은 35.5분이었다. 이는 2017년 같은 조사에서 하루 평균 42.9분이었던 것과 비교해 7.4분 감소한 셈이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SNS 이용 시간은 더 큰 폭으로 줄었다. 2017년 모바일 기준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은 44.0분이었는데, 올해는 35.8분으로 8.2분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SNS 사용 시간이 줄어든 이유가 지나치

게 많은 게시물 양, 공감 가지 않는 기업 마케팅 프로모션, 가짜 뉴스 등을 꼽는다.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SNS 이용자의 피로감을 높였고 거부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동영상 소비 증가와 최근 페이스북의 데이터유출 파문 등으로 SNS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SNS 1위 기업인 페이스북은 지난 7월 26일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92억 달러(약 133조원)의 시가총액이 주가 폭락으로 증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웨너 페이스북 CFO(최고재무책임자)는 “매출액 증가율이 3, 4분기에는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공식 발표였다. 2분기 유럽 페이스북 이용자 수는 전분기보다 300만명 줄었다. 최근 페이스북은 주가를 회복하고 있으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영아 DMC미디어 선임연구원은 “SNS에서는 최근 이용자 정보 유출, 가짜 뉴스, 지나친 광고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용자의 피로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KAA**

이명진 soziro01@kaa.or.kr

〈표〉 SNS앱 사용시간 분석(와이즈앱 안드로이드)

